

지역 소식통

정읍시, '복지농촌 건설' 농어촌공사서 감사패 받아

정읍시가 29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농촌 건설, 농업·농촌 분야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이 농어촌공사 사장을 대신해 유진섭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 함께 정읍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어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3년간 매년 24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농지경작료 확·포장을 통한 기계화 영농(연 26억 원)을 지원했고,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용수로와 배수로 등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연 135억 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취약지역 동파방지책 배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혹한기 상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동파방지책 400개를 관내 취약지역 면에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상하수도사업소는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나눔단 직원들의 도움으로 구입한 동파방지책 400개를 기부받았다. 동파방지책은 겨울철 가장 취약지구에 속한 해변가 마을 위주로 공급하게 된다.

고창군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겨울철 혹한기로 상수도 동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겨울철 동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 물공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귀농·귀촌 일번지 명성 확인

정읍시, 유치지원사업 '전북 1위, 전국 2위' 달성 쾌거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시는 귀농·귀촌 유치 홍보와 유튜브 마케팅, 비대면 소평시스템 운영, 지역 리더 간담회, 마을별 환영회 등 지역민과의 융화사업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귀촌학교 운영, 도시민 상담 홍보 교육, 귀농 체험(현장실습)학교 운영, 밀착형 농가체험단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마을환영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총 7개 분야 21개 평가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민과의 융화사업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와 지역 내 귀농·귀촌인이 민관 협동으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가 지난 10월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탁월한 실적을 거둬으로써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최강 일번지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토대로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하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2년에는 예비 귀농인들이 1년간 임시로 거주하며 전문적인 영농 교육과 함께 직접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가족 실습농장 10개소와 영농실습 교육장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역사·문화 향휴 복합문화공간 역사문화관 개관

부안군,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 기대... 주변 관광지 연계 구심점 되도록 노력"

부안군은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의 숨결과 정신을 하나하나 담아낸 부안 역사문화관 개관식을 29일 부안 역사문화관 앞에서 부안군수와 군의회 의장 문화재단 이사 자원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부안 역사문화관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구) 부안금융조합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으며, 상설 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으로 꾸며졌다.

상설 전시실은 과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안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사진을 활용한 그래픽 패널과 디지털 역사 키오스크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부안의 역사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기획전시실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 과거 사진을 활용한 전시와 슬라이드 쇼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

는 소중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부안군수는 "부안 역사문화관은 부안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선보이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사문화관이 역사와 문화를 마음껏 향유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2년 농촌진흥 분야 신기술시범사업 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농촌진흥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지원한다. 2022년도 농촌진흥 분야 신기술시범사업은 총 63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원예 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 보급,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 확산 시범, 약용작

물 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 등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한은 2022년 1월 21일까지다. 거주지역 읍·면 동사무소 또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지역 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부담이 없고, 사업 예정부지와 건물이 담보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5년 이내에 지방보조금 부담수령 등으로 인해 보조금 결정이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2022년도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발굴한 만큼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격의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동림저수지 일원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사업(벚꽃농촌사업)' 예산(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새 먹이제공+주민소득증대'

고창군, 동림저수지 일원 벚꽃농촌사업 예산확보

고창군이 동림저수지 일원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벚꽃농촌사업)' 예산(1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림저수지는 멸종위기종인 가장오리와 큰기러기, 큰고니, 청둥오리 등이 해마다 활동하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사업비 3300만원을 확보해 동림저수지 1km 이내 농경지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계약단가 m당 45원으로 관

리계약을 체결해 성내면·흥덕면 일원의 51농가 300필지에 3500만원 사업비를 지급했다. 내년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비가 3배 이상 확보된 만큼 사업 대상지를 수면 2km 이내로, 계약단가 또한 m당 45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동림저수지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도래지로 서식하는 철새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물자원 보전과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 주민의 소득증대에 힘써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시범사업 신청·접수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시범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지역에 신속히 보급 확산을 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자에게 실증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시범사업장은 우리지역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 신기술 수용을 높여 농업경쟁력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사업은 감소농육성, 생활자원, 식량작물, 소득작물, 병해충연구, 농기계임대 등 6개분야 42개사업 32억8천4백만원이며,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관련사업 종사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재

된 각 분야별 사업추진계획서를 참고해 읍·면농업소득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각 분야별로 현지확인 및 사업성 검토 등 거친 후 '부안군 농업신학협동심의회'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군 현장 맞춤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과 치유농업·농촌관광 활성화, 고품질 생산 신기술보급 현장지원, 작물 안전생산 병해충 관리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 친환경 농업 기술 시범사업에 지속적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사업추진 단계별의 연사회, 평가회 등을 통한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Advertisement for weight loss. Text: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Includes contact info: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